International Journal of K-Culture Vol.8. December 2025. 165~181
pISSN 2951-2808, eISSN 2951-2883 https://www.ijkculture.com. DOI: doi.org/10.23159/IJKC.2025.12.312.011

K-인터뷰(K-Interview): <신지혜의 영화음악> 소사(小史) (2)

K-Interview: A Brief History of Shin Ji-hye's Movie Music(2)

신지혜*

1. <신지혜의 영화음악>의 정체성

1998년 2월 2일 〈신지혜의 영화음악〉[1]이라는 타이틀로 방송이 시작될 때는 기존 프로그램을 연출하던 PD와 작가가 있었으나, 1998년 3월 2일 봄 개편으로 기존의 PD와 작가가 빠지고 신지혜 아나운서의 1인 제작 시스템이 가동되었다.

이때는 PD나 작가는 물론이고 도움을 주는 인력이 전무한 상태로 신지혜 아나운서는 글자 그대로 기획, 연출, DJ, 오퍼레이터의 역할은 물론 시사회 당첨자를 뽑고 시사회권을 발송하고 확인 전화를 하고 청취자 선물을 포장, 발송하는 것까지 혼자 담당하였다.

당연히 방송용 아이템을 선정하는 것부터 선곡, 방송 원고 작성까지 도맡아 했는데 매일 오프닝 원고와 코너 원고를 작성하고 내용에 맞는 영화음악을 선곡하고 청취자 사연을 실시간으로 받아 선곡하고 방송하였다.

몇 년 후 정식 작가는 아니지만 실시간 방송시 CD나 자료를 찾는 등의 도움을 줄 수 있는 아르바이트 스태프를 둘 수 있게 되었고 2002년 가을 개편 때 정식 작가를 둘 수 있게 되었다. 이때에도 오프닝 원고와 일부 코너 원고는 신지혜 아나운서가 직접 작성했고

* 신지혜는 1994년 4월 18일부터 2023년 10월 31일까지 CBS의 아나운서로 재직하면서 26년간 〈신지혜의 영화음악〉을 1인 제작 시스템으로 진행했고,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서울국제사랑영화제 집행위원을 역임했으며 현재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다. ice-cold@hanmail.net

1 〈신지혜의 영화음악〉은 CBS-FM에서 1998년 2월 2일부터 2023년 10월 31일까지 방송된 영화음악 프로그램이다.

www.kci.go.kr

PD의 역할은 그대로 맡아 1인 제작 시스템을 이어갔다.

〈신지혜의 영화음악〉이 청취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었던 이유는 영화음악 애호가와 영화 애호가들을 타겟 오디언스로 잡아 일종의 장르음악인 영화음악을 소비하고 소화할 수 있는 대중을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진입 문턱을 높게 잡은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영화와 영화음악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들었을 때 만족도를 높일 수 있어야 한다는 기준점을 잡은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신지혜의 영화음악〉은 영화와 영화음악을 좋아하는 대중의 눈높이를 충실하게 따라가면서도 신작, 신곡을 꾸준히 알리며 영화의 흐름을 놓치지 않도록 했고 귀에 익은 곡들을 전면에 배치하면서도 완성도 높은 영화음악과 영화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

2. <신지혜의 영화음악>의 오프닝 원고

앞서 기술한 것처럼 본 프로그램의 오프닝 원고는 시작부터 마지막 날까지 25년이 넘는 세월 동안 신지혜 아나운서가 직접 작성했다.

오프닝은 프로그램을 시작하면서 청취자에게 건네는 말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방향성과 밀접한 관계를 맺는다. 신지혜 아나운서는 평소에 후배들을 교육할 때도 웬만하면 진행자가 오프닝을 쓰는 것이 좋다고 권하곤 했다. 입을 열어 목소리로 청취자들에게 다가가는 사람은 그 누구도 아닌 DJ, 진행자이며 그 진행자가 청취자들에게 건네는 말이 원고로 나올 때 본인의 감성과 마음이 잘 전달될 수 있고 프로그램의 색깔이 잘 전달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신지혜의 영화음악〉의 오프닝은 그래서 개인적인 작은 경험이나 생각을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모티브가 되는 단어나 문장을 조금 더 대중적이고 객관화시켜서 청취자들 개개인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했다.

요일마다 느끼는 사람들의 감정과 상태, 계절에 따른 변화들, 기온과 습도, 날씨에 민감한 마음 등을 생각하며 대중의 마음을 아우르는 오프닝 원고를 쓰고 싶어 했고 그런 의도는 곧 청취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아래는 오프닝 원고의 예시이다.

www.kci.go.kr

210303 (수)

오프닝

안녕하세요? 〈신지혜의 영화음악〉입니다.

찬찬히 둘러보면
그래도 우리에겐 서로가 있잖아요.
힘이 들고 슬퍼도
지치고 피곤해도
내가 다시 일어날 때까지
가만히 곁에 있어 주는 누군가가 있기에
우린 또 힘을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서로에게 기대기도 하고
서로를 기다려주기도 하면서
우린 든든한 연대를 맺어가는 거겠죠.
영화음악으로 마음의 손을 잡는 시간,
신지혜의 영화음악입니다.

210305 (금)

오프닝

안녕하세요? 〈신지혜의 영화음악〉입니다.

영화 〈포레스트 검프〉에서
초콜릿 상자 얘기가 나오죠.
인생은 초콜릿 상자와 같고
그 상자 안에는
맛있는 초콜릿도 있지만
맛없는 초콜릿도 있고

www.kci.go.kr

먹고 싶지 않은 초콜릿도 있어요.
상상하지 못한 기가 막힌 맛이 있는가 하면
쓰거나 매운 것도 있겠죠.
어쨌거나 모든 초콜릿을 다 먹어야 한다면
어떤 초콜릿을 먼저 드시겠어요?
영화음악과 함께 하는 이 시간은
달콤하고 기분 좋은 맛의 초콜릿이면 좋겠네요.

220609 (목)

오프닝

안녕하세요? 〈신지혜의 영화음악〉입니다.

오래 가지고 있고 싶은 물건인데
도무지 언제 없어졌는지 알 수 없어
애가 타는 경우가 생겨 버립니다.
어딘가에 옮겨 놓고 찾을 수 없는 거라면 괜찮은데
아무리 찾아봐도 아무리 생각해도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을 때
난감하고 슬퍼집니다.
그리 가치 있게 생각하지 않는 물건인데
참 오래 곁에 있게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희소가치가 있는 것도 아니고
특별히 아끼는 것도 아닌데
늘 그 자리에 있는 것들이 있죠.
그 물건들을 물끄러미 보고 있자면
무슨 인연일까 싶기도 합니다.
매일 오전 11시에 만나는 영화음악은
당신에게 어떤 대상일까요.

www.kci.go.kr

220704 (월)

오프닝

안녕하세요? 〈신지혜의 영화음악〉입니다.

어떤 향을 맡았을 때
특정한 기억이 소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풍경을 보거나
어떤 음악을 듣거나
누군가를 만났을 때
잠자고 있던 기억이 슬쩍 떠오르기도 하죠.
그 기억들은 때로
나를 놀라게 하기도 해요.
맞아, 이런 일이 있었네,
맞아, 이런 곳에 갔었지,
맞아, 이런 친구가 있었는데 … 하고 말이죠.
영화음악이 있는 이 시간,
우리의 기억이
우리의 좋은 기억이
우리의 어렴풋한 기억이
살짝 떠올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몽글해지고 부드러워졌으면 좋겠습니다.

3. <신지혜의 영화음악>의 요일별 코너 구성와 내용의 변천사

1) 초기 요일별 코너와 스페셜 코너

초기의 요일별 코너에는 반 정도의 시간이 할애되었다. 한 시간 분량 중 25~30분 정도로 꽤 밀도 있고 깊이 있게 구성한 것이다.

영화사에서 기억해야 할 영화감독 소개, 배우 소개, 새로 개봉되는 영화 소개 등의 코너와

www.kci.go.kr

한 가지 주제로 서너편의 영화를 엮어 새로운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코너당 5~6곡의 영화음악을 선곡하고 정보를 전달하는 멘트를 했다.

새 영화 소개는 영화평론가 홍민의 교수가 함께 했는데 영화에 대한 해설과 평이 일면 독설적이고 직설적이지만 들을수록 영화에 대한 사랑과 충심이 큰 사람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어서 〈신지혜의 영화음악〉 팬들에게 사랑을 받았다.

영화에 대한 지식과 센스를 뽐낼 수 있는 '깜짝퀴즈'도 진행했는데 5~6곡의 영화음악을 들려준 뒤 그 영화들에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소재나 주제를 맞히는, 조금은 난이도가 있는 퀴즈 코너였다. 꽤 많은 청취자들이 실시간으로 팩스로 정답을 보내며 참여했는데 후에 신지혜 아나운서는 자신이 출제했던 내용인데도 정답을 모르겠다며 청취자들의 수준에 놀라기도 했다.

주말에는 '영화 속 클래식', '영화 속 CCM' 등 영화 속에서 들려지는 친근한 곡들을 소개하면서 영화음악의 스펙트럼과 친밀성을 느낄 수 있도록 했고 신지혜 아나운서의 선곡으로 이어지는 수요일의 'in the mood'는 그날 그날의 느낌을 담아 6곡을 선곡해 두 파트로 나눠 3곡씩 이어가면서 청취자들이 깊은 감상을 느낄 수 있도록 했고 이 코너는 곧 인기 코너가 되었다.

초기 〈신지혜의 영화음악〉에서 빼놓을 수 없는 코너 중 하나는 매 월말 이욱현 영화음악가를 게스트로 진행한 '한국의 영화음악가', '한국의 영화음악'이다. 영화 〈삼양동 정육점〉, 〈동감〉, 〈두사부일체〉, 〈바람의 전설〉, 〈해바라기〉 등의 음악을 담당했던 그는 영화홍보차 본 프로그램에 출연했다가 한국의 영화음악을 보다 많이 알리고 소개하고 싶어하는 신지혜 아나운서와 뜻이 맞아 매 월말 이틀의 시간을 할애해 한국의 영화음악과 영화음악가를 소개하는 코너를 함께 진행하며 호응을 얻었다. 이 코너는 1년 정도 이어졌다.

2) 2000년대 요일별 코너와 특징

2002년 가을 개편으로 정식 작가를 영입하게 되면서 신지혜 아나운서는 코너도 대폭 수정한다. 오프닝 곡과 전CM이 끝나면 설명 없이 이어지던 '영화처럼 사는 여자'는 당시 청취자들에게 큰 반응을 얻었는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진행된 3분 내외의 이 짧은 코너는 영화의 한 장면을 그린 것이 아니라 영화 같은 장면을 상상해서 내레이션을 통해 감성적으로 다가간 코너이다.

이후 청취자들의 실시간 사연과 신청곡을 전하고 요일별 코너를 10분 안쪽으로 정리해

www.kci.go.kr

3분 정도의 짧은 원고와 관련된 영화음악으로 구성했다. 단, 월요일 코너인 '그 여자, 그 남자의 사정'은 영화의 남녀 주인공의 입장에서 내레이션을 구성하고 중간중간 관련 영화음악을 방송하면서 영화 한 편을 재구성하는 형식으로 진행하였다.

이밖에도 영화음악가를 소개하는 코너를 본격적으로 진행하면서 국내외 영화음악의 흐름과 작품, 인물에 대한 깊이 있는 내용을 다루었다. 또한 영화의 주인공이 누군가에게 쓰는 편지 형식으로 '시네마레터'가 방송되었고 이 코너를 통해 영화를 새롭게 감상하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새 영화를 소개하는 코너는 작가의 원고로 잠시 대체되었다가 맥스무비[2]의 김형호 팀장의 제안서를 받아 면밀히 검토한 후 함께 방송을 하게 되었다. 김형호 팀장은 처음에는 크게 환영받지 못했는데 특유의 보이스 때문이다. 하지만 곧 그의 진정성 있는 영화 소개와 맥스무비 스타일의 재미와 흥미를 더한 영화 해설로 많은 청취자들의 지지를 받았다. 이후 〈신지혜의 영화음악〉과 '맥스무비'는 2004년 제1회 '신영음영화제'를 공동 주최하기도 한다.

이 외에도 '깜짝 퀴즈'가 계속 진행되었고 금요일에는 '금요스페셜'이 자리잡게 된다. 금요스페셜은 하나의 소재 또는 주제 아래 서너편의 영화를 묶어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각 영화에서 오브제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생각해볼 수 있는 코너로 청취자들의 사랑을 받았다.

개봉되는 영화의 홍보를 겸해 비정기적으로 '깜짝 게스트'가 진행되었는데 영화감독, 영화음악가, 배우 등이 출연해 영화에 대한 홍보 뿐 아니라 영화에 대한 개인의 철학 등을 이야기하고 영화음악가의 경우 그의 전반적인 음악의 스타일과 지향점 등을 이야기하는 밀도 있는 시간이었다.

3)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신지혜의 영화음악〉은 25년이 넘도록 1인 제작 시스템으로 진행되어왔는데 10주년을 맞는 2008년부터 다음 해까지 2명의 PD가 거쳐 가기도 했다. 10주년을 맞아 큰 행사들을 기획하면서 역할 분담을 하도록 한 것이다.

이때 〈신지혜의 영화음악〉 10주년을 기념하는 음반 '신지혜의 영화음악'이 발매되었고 한국을 대표하는 조성우, 한재권 음악감독과 함께 10주년 기념 대담을 가졌으며 청취자들을

2 1999년 인터넷 실시간 예매 서비스를 실시했고 영화콘텐츠와 데이터베이스를 축적하면서 영화잡지 〈맥스무비〉를 창간했으며 2004년부터 '맥스무비 최고의 영화상'을 시상해왔다.

www.kci.go.kr

대상으로 오픈 스튜디오를 진행하는 등 몇 가지 행사가 진행되었다.

PD가 새로 영입되었지만 본 프로그램이 정체성을 유지, 개선하는 데 목적을 두었기 때문에 기존의 톤 앤 무드는 크게 바꾸지 않았고 신지혜 아나운서는 여전히 오프닝과 일부 코너 원고를 작성하는 등 자신의 이름을 내건 프로그램에 걸맞게 중추적 역할을 충실히 했다.



〈사진 1〉 신영음 10주년 기념 음반 표지



〈사진 2〉 신영음 10주년 기념 간담회.
조성우, 신지혜, 한재권

또한 〈신지혜의 영화음악〉 10주년을 맞아 최지영 작가와 함께 〈시네마레터〉를 발간했다. 출판사의 요청으로 함께 작업한 이 책은 당시 인기 코너 중 하나였던 '시네마레터'를 집필한 작가의 원고에 신지혜 아나운서가 영화 해설 등을 달아 출간되었다.

4) 〈신지혜의 영화음악〉 중기 요일별 코너와 특징

2009년, 다시 1인 제작 체제로 복귀한 〈신지혜의 영화음악〉은 기존의 코너들을 이어가면서도 수정, 보완하는 전략을 택했다. 초창기부터 꾸준히 청취해 오고 있는 청취자들을 중심으로 새로 유입되는 청취자들의 기호와 감성에 맞게 조금 더 파퓰러한 곡들을 전면에 배치하고 〈신지혜의 영화음악〉에서만 들을 수 있는 일명 '신영음표' 영화음악을 적절하게 배치하면서 균형을 맞추는 데 신경을 썼다.

주말에는 한 영화의 OST를 줄거리와 함께 편안하게 감상할 수 있는 코너를 넣기도 하고 청취자들의 마음속에 남아 있는 추억의 영화를 받아 방송하기도 했다. 초창기에 방송했던 '금요스페셜'은 '영화와 오브제'로 재탄생 시켜 영화를 보는 새로운 시선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이 원고 역시 신지혜 아나운서가 직접 작성하였다.

아래는 '영화와 오브제' 원고의 일부이다.

www.kci.go.kr

○ 영화와 오브제 – 청소부

굿 윌 헌팅.
처음에 이 영화가 소개될 때 많은 사람이 당황했죠.
대체 굿 윌 헌팅이 무슨 뜻이야?
그리고 그것이 사람의 이름이란 걸 알게 되고 하하.. 웃었습니다.
그리고 〈굿 윌 헌팅〉이 그런대로 괜찮은 영화인 것을 알고 미소지었죠.
윌 헌팅이라는,
아직 청년이라기엔 조금 어리고 소년이라기엔 조금 큰,
그런 나이의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MIT의 난다 긴다 하는 학생들도
끙끙거리며 제대로 풀어내지 못하는 어려운 수학문제를
그 자리에서 풀어버리는 비상한 두뇌를 가진 윌 헌팅.
하지만 그는 MIT의 학생도 아니고
타인의 지대한 관심을 끌며 후원을 받는 사람도 아닙니다.
빈민가에서 자랐고 싸움도 곧잘 하고 전과도 있고 … 그리고 그는 MIT의 청소부랍니다.
학생들에게 어려운 문제를 내는 걸 즐기는 교수가 있었죠.
언제나 복도에 걸려있는 커다란 칠판에 문제를 적어놓죠.
누구든 … 와서 풀어라 …
칠판에 적힌 문제는 언제나 자신만만하게 학생들을 향해 거만한 몸짓을 보입니다.
오직 윌만이 그 문제를 수월하게 풀어내죠.
교수는 윌을 알게 되고 윌의 비상한 머리를 아까워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절친한 친구이자 역시 마음의 상처를 갖고 있는 의사를 소개하죠.
윌과 의사는 서로에게 있는 마음의 상처를 치료합니다.

○ 영화와 오브제 – 전화

초조한 표정으로 전화벨이 울리기를 기다립니다.
그들은 2199년의 현실이 어떤 것인지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인간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기계들은 인간과 전쟁을 벌이고 승리해
인간을 에너지원으로 삼아 버립니다.

www.kci.go.kr

끝을, 시작을, 규모를 알 수 없는 거대한 매트릭스는
인간들에게서 에너지를 빼앗아가면서
대신 달콤하고 깨어나기 싫은 꿈, 가상현실을 주입하죠.
하지만 1999년의 현실이, 믿어지지 않지만
사실은, 가상이며 가짜이고 속임수임을 깨달은 사람들은
인간의 모든 것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기계에 대항해 싸웁니다.
그들이 가상의 현실과 실제의 현실 사이를 오갈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전화예요.
그래서 그들은 초조한 표정으로 육체의 긴장을 팽팽히 느끼며
전화벨이 울리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 영화와 오브제 – 주크박스

여자에게 남겨진 주크박스 번호는 1818번.
자신에게 주어진 번호를 누르니
처연하고도 아름다운 곡이 흐릅니다.
망기타, 라는 제목의 노래.

'그 사람을 잊었어요. 모든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
그 사람을 잊었어요. 기쁨을 잊은 거예요 …
그 사람을 잊었어요. 어떻게 잊을 수 있었는지.
가슴 속 깊이 새겨져 영원히 기억 될 텐데.
이젠 끝을 생각하지 않겠어요'

남자는 킬러. 그는 기억을 갖고 있지 않죠.
그래서 무심하고 냉정하게 맡은 일을 처리해요.
그에게 있어 일에 감정이 섞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자는 남자의 동업자인 과장.
남자에게 일을 알리는 역할을 하는 그녀는,
언제부터인가 남자에게 끌립니다.
남자가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과장은 남자의 방을 찾아가 그의 방을 청소하면서

www.kci.go.kr

그의 소소한 일상을 투영하는 자잘한 것들을 살피며 그의 삶을 소유하려 애쓰죠.
하지만 과장의 사랑은 킬러의 거부로 일방적인 것이 되어 버리고
남자는 과장과의 동업을 끝내려 합니다.
남자는 자신이 자주 들르는 바의 주인에게
여자가 오면 주크박스 1818번을 들려 달라고 부탁하고
그렇게 주크박스에서는 무심한 듯 애처롭게 망기타가 흐릅니다.
두 사람의 관계를 끝내자는 무언의 메시지를 받은 여자는 음악에, 눈물에, 술에 취하죠.
영화 〈타락천사〉의 주크박스입니다.

이 시기에 〈신지혜의 영화음악〉에는 많은 게스트가 다녀가기도 했다. 물론 초창기부터 영화음악가, 영화감독 등이 스튜디오를 찾았지만 2009년 이후 2020년 초 팬데믹이 있기까지 많은 게스트가 스튜디오를 찾아 영화에 대한, 영화음악에 대한 깊이 있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나누었다.

〈신지혜의 영화음악〉에서는 신변잡기식의 대화는 나누지 않았다. 게스트는 주로 신작을 가지고 나오기 마련이니 신작에 대한 소개와 함께 (스포일러가 되지 않는 선에서) 감독이나 배우의 전작의 흐름 등도 함께 짚어 주며 흥미로우면서도 깊이 있는 대화를 끌어내려 노력했다. 라디오가 주는 편안함과 게스트에 대한 배려가 어우러진 코너일 수밖에 없었다. 고정 게스트 코너가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후에 자리가 잡히면서 매달 게스트를 초대하는 코너로 자리잡게 되었다.

장편 데뷔작 〈죽거나 혹은 나쁘거나〉 때부터 〈신지혜의 영화음악〉에 출연해 인연을 맺어온 류승완 감독은 거의 신작이 나올 때마다 출연했고 〈신지혜의 영화음악〉 애청자이기도 한 박성웅 배우, 장현성 배우, 엄태화 감독, 이준익 감독, 엄태구 배우, 천성일 감독, 박정민 배우, 유지태 배우, 민규동 감독, 홍지영 감독, 허진호 감독 그리고 늘 〈신지혜의 영화음악〉에 대한 지지와 응원을 보내주는 조성우 음악감독을 비롯해 이병우, 이재진, 최승현, 이지수, 심현정 음악감독 등이 출연해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또한 영화와 영화음악을 보다 깊게 감상할 수 있는 '영화 읽어주는 여자', '음악 들려주는 여자'는 수년간 인기리에 방송된 코너들이다.

www.kci.go.kr



〈사진 3〉 박성웅 배우



〈사진 4〉 김동욱 감독, 심은경 배우



〈사진 5〉 유지태 배우



〈사진 6〉 엄태구 배우



〈사진 7〉 박정민 배우



〈사진 8〉 호소다 마모루 감독

그러면서 2018년 〈신지혜의 영화음악〉은 20주년을 맞게 되었고 청취자들을 스튜디오로 초청해 오픈 스튜디오를 진행하고 기념 상영회를 열었으며 작가와 함께 20주년 기념 책 '신지혜의 영화음악'을 출간한다. 이 책은 신지혜 아나운서가 쓴 오프닝과 코멘트, 작가가 쓴 코너 원고와 코멘트로 구성되어 있다.



〈사진 9〉 20주년 기념 책 '신지혜의 영화음악' 청취자들이 보내준 인증 샷 모음



〈사진 10〉 20주년 기념 상영회

www.kci.go.kr



〈사진 11〉 신영음 초창기부터 막방까지 함께 한 애청자들



〈사진 12〉 20주년 오픈 스튜디오

5) 〈신지혜의 영화음악〉 후기 방송의 특징과 25주년 기념 프로젝트

2020년 1월말, 팬데믹이 터지고 뉴스와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도 마스크를 써야 했던 시기가 있었다. 그리고 곧 팬데믹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각 방송 부스에는 투명한 플라스틱 칸막이가 설치되었고 손소독제와 방송 전 마이크 주변에 뿌릴 소독제가 마련되는 등 방송가에도 비상이 걸렸다.

〈신지혜의 영화음악〉도 게스트 코너는 모두 빼고 기자시사회도 진행되지 않아 온라인 스크리닝으로 신작을 보고 소개를 하였다.

팬데믹이 조금씩 가라앉는 기미를 보이면서 아주 뜸하게 깜짝 게스트를 초대해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지만 고정 코너는 아니었고 상영관에도 관객 숫자가 많지 않았지만 꾸준히 개봉되는 영화들에 대한 소개와 기존 영화음악으로 마음을 달래고 나누는 연대의 역할에 충실하고자 했다.

팬데믹이 한풀 꺾이면서 〈신지혜의 영화음악〉은 25주년을 바라보게 된다. 그때 신지혜 아나운서는 25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몇 가지 준비한다.

먼저, 2023년 2월 2일 〈신지혜의 영화음악〉 25주년을 앞두고 2022년 가을 개편 때 새로운 코너를 만들었는데 바로 한국의 영화음악가를 새롭게 조명하고 소개하는 코너였다. 조성우, 이동준, 최승현, 이지수, 심현정, 홍대성, 김준석, 정세린, 황상준, 달파란, 김준성, 정현수, 박기헌, 최용락, 정나현, 변동욱, 이명로, 손한묵, 최종호 등 한국의 영화음악을 담당하는 쟁쟁한 음악가들의 육성을 직접 따고 음원을 받아 청취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코너이기도 하다.

짧은 소개멘트와 1분 남짓한 영화음악가의 인사 그리고 두어곡의 작품으로 구성된 짧은 코너이지만 그 어느 코너보다도 영화음악 프로그램의 정체성을 살리고 한국의 영화음악가

www.kci.go.kr

를 집중 조명하는 의미있는 코너였던 것이다.

그리고 2023년 2월 2일, 25주년 기념 유튜브를 한국의 실력 있는 신진 영화음악가들인 정나현, 변동욱, 이명로, 손한묵, 최종호 음악가들과 촬영하고 당일 저녁 청취자들과 함께 한 25주년 기념 상영회를 가졌다. 이날 함께 본 작품은 〈3000년의 기다림〉이다.

25주년 기념 상영회는 1회에 그치지 않고 7월 6일, 엔니오 모리코네의 이야기를 담은 〈엔니오 더 마에스트로〉를 두 번째 기념상영작으로 함께 했다.

이밖에도 〈밀수〉 개봉 때 류승완 감독과 처음으로 영화음악을 맡은 장기하 음악감독을 게스트로 유튜브를 찍고 오디오를 편집해 본 방송에 내보냈으며 〈콘크리트 유토피아〉 개봉에 즈음해서 엄태화 감독과 동일한 방식으로 송출하는 등 〈신지혜의 영화음악〉 25주년을 기념하는 크고 작은 행사들을 기획, 실행하였다.

무엇보다도 그해 제천국제음악영화제에서 〈신지혜의 영화음악〉 25주년 기념 프로그램을 함께 하자고 제안해 기획과 섭외, 진행 등을 하였는데 토크 게스트로 황상준, 손한묵, 정나현 음악감독이 출연해 주었고 기타리스트 장하은, 팝페라 가수 하나린의 축하무대가 격을 더해 주었다.



〈사진 13〉 〈밀수〉 류승완, 장기하



〈사진 14〉 〈콘크리트 유토피아〉 엄태화



〈사진 15〉 25주년 기념 영화음악가 대담



〈사진 16〉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신지혜의 영화음악〉 25주년 기념 프로그램



〈사진 17〉 25주년 기념상영회

www.kci.go.kr

25주년을 맞은 〈신지혜의 영화음악〉은 이렇게 안팎으로 크고 작은 행사들을 다채롭게 운영하면서 데일리 방송 프로그램의 본분을 잊지 않고 매일의 선곡과 방송에 충실하였다.

그리고 2023년 10월 31일 〈신지혜의 영화음악〉은 신지혜 아나운서의 퇴사와 함께 마지막 방송을 한다.

4. 청취자와 함께 만든 신영음영화제

〈신지혜의 영화음악〉이 독특했던 이유는 단순한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노력과 시도를 했다는 것이다. 그중에도 가장 특기할만한 것이 〈신영음 영화제〉이다. 이 영화제는 2004년과 2005년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되었는데 신지혜 아나운서와 작가 한 명이 전부인 인력구조로서는 사실상 불가능한 프로젝트였다.

하지만 신영음 청취자 중에는 영화 홍보사 직원도 있었고 디자이너도 있었고 포토그래퍼 등 전문인력과 함께 각종 영화제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는 젊은 친구들이 있었다. 신지혜 아나운서는 바로 이들을 떠올렸고 개별 연락을 통해 '신영음 영화제' 스태프를 꾸릴 수 있었다. 모두 직장을 가진 사람들이어서 회의를 자주 할 수 없었고 그래서 온라인 회의방을 만들어 지시사항과 진행 사항을 바로 주고받으며 일했다.

그렇게 영화제의 기획 의도를 설정하고 작품을 섭외하고 상영관을 섭외하고 (당시 윤좌원 대표께서 '중앙시네마' 공간 협찬을 해주셨다) 프로그램 홈페이지에 영화제 신청난을 만들고 포스터를 촬영하고 브로슈어와 버튼 등의 굿즈를 만들고 영화제를 개최했다.

1회 신영음 영화제는 '현수와 은주, 오시이 마모루를 만나다'였다. 신영음 영화제를 개최하리라 작정하면서 주제를 어떻게 잡을까 고민하던 신지혜 아나운서는 프로그램의 정체성 중 하나가 '애니메이션'임을 떠올렸다. 당시만 해도 애니메이션, 애니메이터 등의 용어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 많을 때였고 개인적으로 애니메이션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애니메이션 작품의 음악을 자주 방송하던 신지혜 아나운서는 영화제의 주제를 애니메이션으로 잡기에 이른다.

작품을 물색하다가 대원미디어에서 오시이 마모루 감독의 〈이노센스〉를 8월초에 개봉하려 한다는 정보를 얻게 되고 판권을 가진 대원미디어와 손을 잡는다. 그렇게 해서 오시이 마모루 감독의 〈공각기동대〉를 개막작으로, 그가 제작에 관여한 〈인랑〉과 〈이노센스〉를 2일차, 3일차에 상영하게 된다.

www.kci.go.kr

〈신영음 영화제〉는 초미니 영화제를 내세워 3일간 마지막 회차를 빌려 진행되었으며 〈신지혜의 영화음악〉과 맥스무비가 공동주최를 하고 중앙시네마가 장소 협찬을, 대원미디어가 작품 협찬을 하면서 영화제의 꼴을 갖추게 되었다. 당시 중앙시네마 기획실에서 근무했던 강기명 실장 (지금의 트리플 픽쳐스 대표)과 맥스무비 김형호 실장, 대원미디어 담당자 등이 큰 도움을 주었다.

1회 신영음 영화제 포스터의 모델도, 사진도, 포스터 디자인도 모두 신영음 청취자로 구성되었고 영화제를 앞두고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몰려와 각자의 역할을 다해 주면서 〈1회 신영음 영화제〉를 성공리에 마쳤다.

2005년 2회 영화제는 한국의 영화음악가에 초점을 맞추고자 했고 한국 영화음악계의 양대 산맥이라 할 수 있는 조성우, 이병우 감독을 주제로 잡았다. 중앙시네마의 한 관을 할인된 가격으로 대관했고 1회와 동일한 방식으로 사흘간 마지막 회차에 한 편씩 작품을 상영했다.

상영작으로는 〈코러스〉, 2일째 날은 '조성우의 날'로 정해 편집된 영상과 함께 음원을 감상하고 〈8월의 크리스마스〉를 상영했는데 〈봄날은 간다〉의 OST에 참여했던 최고의 뮤지컬 배우 이소정씨가 무대에 올라 '사랑의 인사'를 불러 뜨거운 호응을 얻기도 했다. 당시 필름을 수급하기 위해 영화사에 직접 연락을 하고 흔쾌히 허락을 받았으며 한석규 배우의 팬클럽에게서 감사인사를 받기도 했다.

3일째 날은 '이병우의 날'로 〈마리 이야기〉의 OST에 참여한 가수 성시경씨가 무대를 꾸며 주었고 개봉을 앞둔 신작 〈연애의 목적〉을 폐막작으로 상영했다. 또한 조성우 감독과 이병우 감독이 직접 상영관을 찾아 팬들에게 사인을 하고 자신의 작품을 함께 감상해 큰 의미를 남겼다.

〈신영음 영화제〉는 2회에 그쳤지만 초미니영화제의 개념으로 일개 방송 프로그램에서 주최한 점과 청취자들이 함께 이뤄낸 영화제라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으며 이 영화제를 기획한 신지혜 아나운서는 1인 제작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아나듀서로서의 공적과 신영음 영화제라는 전무후무한 프로젝트의 기획, 진행력을 인정받아 2006년 한국방송대상 아나운서 부문 수상과 2006년 한국아나운서연합회 대상을 수상했다.

www.kci.go.kr



〈사진 18〉 1회 신영음 영화제 포스터



〈사진 19〉 2회 신영음 영화제 포스터



〈사진 20〉 1회 신영음 영화제



〈사진 21〉 1회 신영음 영화제

5. 결론

올드미디어, 레거시 미디어 혹은 좀비 미디어라 불리는 라디오의 수많은 프로그램 중 하나였던 〈신지혜의 영화음악〉은 시작부터 평범하지 않았다.

1인 제작 프로그램으로 모든 것을 한 사람이 끌고 갔던 것부터 영화음악 프로그램답게 국내외의, 특히 한국의 영화음악가를 조명하고 알리고자 했던 노력은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매주 2~3개의 청취자 시사회와 이벤트를 준비하고 진행하고 데일리 프로그램을 연출하고 진행하면서 오픈 스튜디오, 단독 상영회 등 청취자들과 함께 하고자 하는 노력을 계속했으며 초미니이긴 하지만 영화제까지 기획하고 실행한 유일무이한 프로그램일 것이다.

뉴미디어의 시대로 접어든 지금, 이제는 라디오를 듣는 청취자가 많지 않고 〈신지혜의 영화음악〉에서 해왔던 방식들이 낡고 진부한 것이 되었다고 해도 시대와 함께 호흡해 온 라디오 영화음악 프로그램으로서의 〈신지혜의 영화음악〉의 의미는 보전되어야 할 것이다.

www.kci.go.kr